

# “전국민 25만원 지원 당론 발의”

### 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22대 개원 즉시...선별 지원 협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 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법안을) 보고하고 총회가 모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는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존 민주당은 변함없긴 하지만 ‘선별지급’으로 협상의 여지를 둔 만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 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회복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데 정부와 여당은 손가락만 가리키며 위헌시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옳으나 그러나 따지지 말고 즉각적인 민생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VIP 격노설’ 전말 속속 드러나”

### “수사 외압 들릴까 두려워 ‘채상병 특검법’ 거부’ 수용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릴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악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데 맥을 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주영(가운데)·천하람 당선자가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모든 묘비에 헌화하고, 묘비를 닦으며 오월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준석, 김해 국화 1000송이로 5·18 참배

### 개혁신당 대표, 영호남 화해·상생 의미...민주묘지 내 모든 열사 추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를 들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영호남 상생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모든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참배에는 4·10 총선 이주영·천하람 당선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민주묘지 1묘역부터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 참배에 앞서 이 대표 일행은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000여

송이를 들고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이른 시간 김해에서부터 국화를 공수해 온 것은 영호남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보수정당의 협지로 좁혀온 호남을 향한 구에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정치인이 민주묘지 내 모든 열사 묘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5·18묘지를 많이 찾아 참배하지만 안타까운 희생자 중 일부만 찾아 뵙는다. 스스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느꼈다”며 “열사의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 국화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 “영남 분들도 5·18 정신에 대해 많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5·18의 비극은 영호남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 일부 잘못된 군인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은 광주만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오월 광주 정신을 잇는 데 각자의 노력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시청·시의회·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마련

### 신수정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광주지역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각 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를 실시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민주·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시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렴도 진단·평가를 해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5등급 중 중간 이하였다. 광주시는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시의회는 3등급을, 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하면서 청렴도 제고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에는 시장·의장·교육감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을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신수정 의원은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시의회·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빛고을 ‘정정 광주’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 ‘탄소 중립 교육’ 전문 강사 양성 활성화

###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남지역에서 전문적 탄소 중립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김호진(민주·나주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전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고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을 담도록 했다.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



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교육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환경·생태·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행해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해 위촉토록 했다.

김호진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전문강사 양성, 운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